

라식수술, 부작용 0% 도전

전공의 시절, 필자는 비상연락 때문에 허리춤에 늘 삐삐(무선호출기)를 차고 있어야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휴대전화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런 기능 외에도 휴대전화는 놀랄 정도로 발달했다.

그런데 이렇듯 놀랍게 변한 건 라식수술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라식수술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이 벌써 15년 전이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라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발전을 되짚어보면 놀랍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라식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은 펄토세컨드레이저(Femtosecond Laser) 기술의 도입이다. 이로 인해 라식은 더욱 안전한 수술이 됐다. 라식의 대표적 합병증인 각막확장증의 발생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러 의료진의 보고와 연구를 종합해보면 각막확장증은 라식수술 후 0.2~0.04%의 확률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1555명의 라식수술 후 각막확장증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8.3%는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수술 전 정밀검사와 의사의 신중한 판단, 그리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술이 충족되면 라식의 안전성은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펄토세컨드레이저 도입이 라식수술의 안전성을 증대시킨 이유는 그 기술의 정밀성에 있다. 칼날을 이용한 절편 제작과 비교할 때, 펄토세컨드레이저로 제작된 절편의 두께가 훨씬 정확하고 균일해 수술 계획을 더욱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절편을 더 얇게 제작할 수 있어 안전한 두께의 잔여 각막을 보장한다. 게다가 비주맥스(VisuMax)의 펄토세컨드레이저는 단순한 절편 제작을 넘어 엑시머레이저가 필요 없는 라식수술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정밀도가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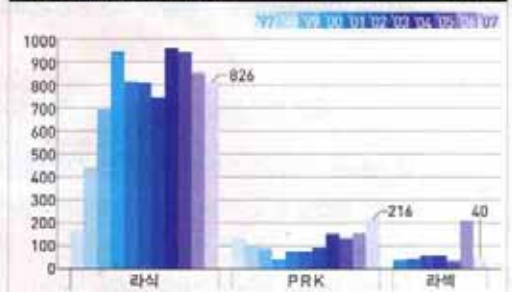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보면 각막확장증으로 대표되는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다소 과장돼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ASCRS)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7년 미국에서 시행된 굴절교정수술 100만여 건 중 라식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이른다. 이는 여전히 라식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식수술을 받으려 온 환자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선생님은 왜 수술을 받지 않으세요?"다. 그러면 나는 "우선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10디옵터의 심한 근시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각막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과 의사인 내 아내와 일반외과 의사인 형을 비롯해서 여러 가족에게 라식수술을 포함한 굴절수술을 해줬고 근시가 있는 안과 의사가 라식수술을 받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조사결과도 덧붙여 말한다. 라식의 진화와 15년 이상의 임상경험은 이제 라식수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로 완성시켜가고 있다. **☞**



라식 합병증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펄토세컨드레이저 비주맥스로 수술하는 장면.

미국 굴절교정수술 건수 변화



정의상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